

출판계 여론 메카, '북에디터' '영인회' 게시판

출판계의 '블릭'...자발적 토론으로 건강한 여론 지향 '출판인 역량 강화', 북에디터 자금·인력 부족난도

과학계에 브릭(BRIC :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이 있다면 출판계에는 출판영업자들 주축으로 모인 한국출판영업인협회(회장 이동훈, www.kpmac.net, 이하 영인회)와 편집자들 주축으로 모인 북에디터(운영위원 강유경 www.bookeditor.org)가 있다. 이들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친목'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따끈따끈한 업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으로써 출판인으로서의 역량을 높인다는 게 목적이다.

출판계 신문고 역할...일반인 포함 일일 수만명 방문

북에디터는 1999년 11월 푸른숲에 몸담고 있던 김학원 휴머니스트 대표의 개인 홈페이지에 모인 편집자들의 의기투합으로 시작됐다. 북에디터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회가 책임을 맡고 있다. 현재 회원은 2만3,000명 정도 된다. 북에디터의 경우 출판계 종사자 외에도 '편집자'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유사 업종의 종사자들이 회원으로 다수 가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북에디터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강유경 씨는 "글을 만지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다보니, 올라오는 글이나 반응이 여느 사이트와는 달리 차분하고 진지한 편"이라며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전에는 온라인 세계의 청정구역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구인구직과 Q&A가 장점이 다. 예비출판인들과 더 나은 직장을 찾는 편집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북에디터를 통해 인재를 채용한 후 그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를 하기도 하는 출판사도 더러 있을 정도다.

영인회는 1987년 현장 영업자들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들어진 데 이어, 2002년 6월 현 회장인 푸른숲 이동훈 국장과 대일출판사 홍동수(영인회 전 회장) 부장을 비롯해 실천문학사 김경배, 우리교육 김중만, 길벗 김태영, 오리진 문해수 등이 주축이 돼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중 문해수 씨만 다른 업종으로 떠났고, 나머지는 여전히 영업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6,000명 정도로 일일 이용자수는 900~1,000명에 달한다.

출판 영업인은 업무 특성상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전국이

다 근무지라고 할 수 있다. 영인회 사이트의 장점도 여기에 있다. 이들이 올린 질문과 답글을 통해 수급이나 부도 등 전국 서점에서 일어난 일을 빠른 시간에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영업현장에 있다보니, 많은 경우 하루 대여섯 차례 만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유대도 끈끈한 편이다.

재정문제, 운영 시스템 등 한계도...사이트 개편 움직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사이트가 출판계의 여론을 모으는 점이다. 최근 북에디터에선 한 외주자가 자신이 경험한 대금 미지급 사례를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출판운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영인회 게시판은 현재 출판계 이슈인 사제기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기도 하다. 그 때문에 <출판저널>과 같은 출판전문지나 일간지 출판담당기자들, 그리고 출판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틈틈이 방문, 출판계 정보와 여론을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초 '친목'이라는 모임의 특성상 사이트 운영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출판계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라는 사이트 개설 초기의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퇴색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또 회비로 운영되는 영인회와 달리, 소수 개인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북에디터는 살림이 넉넉지 못하다. 고유의 업무가 있다보니 책임지고 콘텐츠를 관리할 인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강씨는 "아무래도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자신의 콘텐츠와 경험을 공유하고 보듬어 가기보다는 남의 콘텐츠와 경험에 무임 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고 운영상 애로를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사이트 개편의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됐으나, 운영비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영인회는 새 임원진이 구성되면서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만든 지 3년 6개월이 되다보니 현재의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회원 구분을 5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카테고리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동훈 회장은 "사안별로 의제가 생길 때마다 '토론광장'에 부처 자발적 여론을 이끌어 내는 등 사이트를 활성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취재_신동섭 기자